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since

1929.5.1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과동 3가 85
☎ 713-5254(사무실) 717-2605(담임목사실)
Homepage : <http://www.chungpa.or.kr>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왕국절 제8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9. 거룩 거룩 거룩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가을 바람에 한들거리는 역새를 볼 때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하신 주님의 음성이 떠오릅니다. 한 세상 멋지게 살아보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세상살이에 지쳤습니다. 어느덧 희망의 말보다는 자조의 말을, 감사의 말보다는 불평을 먼저 터뜨리는 저희 들입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쓸쓸함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둡니다. 주님, 육망의 숨결로 흐려진 우리 영혼을 맑게 해주십시오. 맥없이 휘청거리는 우리 무릎에 힘을 주십시오. 눈물을 닦고 일어나, 척박한 역사의 한복판에 희망의 씨를 심고 계신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호 10:12
♠ 교 독 문	14. 시편46편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대표기도	I. 염혜영 선생 II. 박옥식 전도사
사도신경	다함께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1. 323. 주께로 한
	걸음씩
성경봉독	I. 창 3:1-13
	II. 렘 45:1-5
	김용길 집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I. 그럴싸함과 진실 사이
	II. 삶은 계속된다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441. 비바람이 칠 때와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59. 성전을 떠나 가기 전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못 사람들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날마다 거룩함과 화평의 씨앗을 심어,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열매를 거두십시오.

다 함 께 :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우리를 지키시어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헛된 소리와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용기 있게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시련의 풍량이 세찰수록 ‘생명의 깃발’ 더욱 힘차게 치켜들고 살게 하소서.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제7회 청파 테니스 대회	로마서 강해(57)
총진행 : 한완식 장로	기도 : 김훈동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홍 목사 김기석 목사	최성애 집사 윤정덕 장로	다함께 이동천 집사

10월	영접위원	한완식	김정길	김종훈	최숙화	고숙이	박미영
	헌금위원	조병무	방문성	박창운	유영남	배삼순	이기분

돼지의 맑은 두 눈

세상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다. 그런데 우리의 지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문에도 같은 점과 다른 점, 통일성과 다양성이 들어 있다. 이와같은 하나님의 지문은 모두 삼위일체의 도장이요, 한 분이며 동시에 세분이신 하나님, 즉 끝없는 다양성이요 또한 다양성 속의 단일성이신 하나님의 도장이다.

세상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듯이, 전자(電子)로부터 은하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존재도 하나이면서 동시에 여럿이다.

완전히 똑같이 닮은 두 마리의 애벌레가 없듯이 똑같은 두 개의 원자도 없고, 겉으로 보기에 똑같아 보이는 밤하늘의 별 가운데 똑같이 닮은 별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모든 존재는 궁극적으로 하나이며, 문학 특히 시의 기능은 삼라만상의 표지인 이러한 통일성, 이러한 보편적 형태를 발견하는 일이다. 시는 사물들이 나타나는 다양성 속의 통일을 보여주는 것이니, 시에서는 산들이 수양처럼 뛰고, 언덕이 어린양처럼 뛰놀며, 당신의 머리털은 가라하드산맥 속을 헤매는 염소를 닮는다.

밝은 달밤에 울어대는 개구리와 귀뚜라미들의 합창, 많은 목소리들, 짐승들의 높고 낮은 울음소리들—멀리서 들리는 닭 울음, 암소의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를 비롯한 농장에서 들리는 모든 다른 신비로운 소리들—이런 모든 것은 수도자들이 합창으로 바치는 매일매일의 거룩한 예식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서로 다른 언어로 부르는 찬미가요 기도이다.

새들은 노래를 부름으로써 성부께 일용할 양식을 요청하며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새들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밖의 다른 짐승들은 각기 제나름대로 주의 기도를 바치고 있다.

모든 예술품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는 별들도 또한 그렇다. 따라서 모든 진정한 예술품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기도다. 그리고 예술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특별히 종교적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예술은 근본에 있어서 종교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삼라만상 가운데, 심지어 돼지의 맑은 두 눈에서도 드러난다.

모든 것은 본질상 깨끗하고 순결한 것이니, 폐결핵 환자의 침도 카리브해의 맑은 바닷물만큼 깨끗하다(제노아의 카타리나 성녀가 병자의 상처에서 흐르는 고름을 빨았던 것이나 성 루이스 대왕이 문둥병자의 헌데에 입을 맞췄던 것도 다 이런 까닭에서다). 두루미나 벌레들이나 깨끗하고 순결하기는 마찬가지다. 모든 물질은 투명하고 성스러우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생겨난 때문이다. 오직 죄만을 빼고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은 순결하다. 풍경은 순결하다. 타락한 인간의 혼란스러운 욕망과 욕구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짐승은 순결하다. 자만심이나 욕정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성인군자가 될 때, 즉 혼란스러운 욕망과 욕구, 자만심과 욕정을 모두 끊어버렸을 때, 그의 평온한 영혼은 숲처럼, 호수처럼, 벌레나 두루미처럼 순결해진다.

한 마리의 짐승 또는 한 그루의 나무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곧 하나님의 본질 자체, 왜냐하면 하나님 속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그분의 본질이니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며,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말을 모자람이나 지나침이 벗어 명명백백히 그대로 전달하는 하나의 말씀이다. 모든 물건은 완전한 복종의 표현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자신 속에서 뚜렷이 드러낸다. 예언자 바룩(구약성서에 나오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제자)의 말대로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은 “우리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무생물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낸다.

사람의 육신도 또한 성스럽고 거룩하고 죄를 모른다. 그러므로 욕망이 없는 곳에는 죄가 없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무한한 순결 자체이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증인으로, 마음내키지 않는 공모자로, 우리 죄의 희생자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하나님의 존재는 삼라만상 안에 들어 있는 까닭이다.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억압하는 일이다.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확대하는 일이다. 저주받은 사람은 스스로를 업신여기는 사람이며 따라서 스스로에게 커다란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이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행사하는 일이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는 일이다. (에르네스토 까르테날)

매일 저녁

매일 저녁 너는 너의 하루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날 하루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그날 하루의 행동이나 신의가 흡족했는지,
불안과 후회 속에서 절망하지는 않았는지,
너의 사랑의 이름들을 전부 불러보고,
미움과 과실을 가만히 고백해야 한다.
모든 나쁜 짓을 속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떤 그늘도 침대 속으로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
모든 걱정을 영혼에서 털어내어
그것들을 멀리서 어린애처럼 쉬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깨끗해진 너의 가슴속에서 자신 있게
네게 가장 사랑스러운 것들을 회상해야 한다.
이를테면 너의 어머니와 너의 어린 시절을.
보라, 이제 너는 순수해져, 시원한 잠의 샘물을
한잔 깊이 들이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황금빛 꿈들이 다정히 손짓하고
해맑은 정신으로 새로운 날을
영웅처럼, 승리자처럼 시작하는 샘물을.
(헤르만 헤세)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김근중 지휘 : 윤주원 반주: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문만실 박창운 허정윤 이광용 형인순 최종원 이봉배 이인웅 노용래
조병무 송양진 강인식

월정헌금:

정원석 김현영 유증희 이재문 조항범 오현정 이한림 김명희 정두리
황원순 전영규 김경수 박준희 이기분 황자순 이갑재 노봉임 노미향
이호원

감사헌금:

임승동 백혜숙 강인식 김중수 이순정 이용한 한상의 정영선 안종일
장현주 송양진 무명1

생일감사헌금: 방문성 조병주 구도헌금: 김기석 김재홍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박 옥 식	차 혜 심	하 재 두	조 순 덕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표 명 화	윤 정 덕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이 춘 희	김 필 순
가 나 안	유 영 남	문 영 혜	이 소 순	장 혜 숙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안 정 숙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흥 재	박 흥 재	백 묘 현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송 의 섭	박 효 선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최 속 화	김 명 순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한 선 희	오 복 순
빌 린 보	최 종 원	이 형 숙	최 종 원	이 정 은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흥 숙	심 방	김 진 경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안 경 숙	김 혜 권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배 삼 순	김 성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조 항 미	박 혜 경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교 회	교 회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2003년 -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골4:17)

1. **월례회** : 2부 예배 후 제2·3·남녀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2. **테니스대회** : 오늘 오후 2시부터 여의도 테니스 코트에서 열립니다. 귀한 사권의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3. **심방** : 가을철 심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키가 자라는 좋은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21일(화) - 시온, 다메섹
4. **위로회** : 속장·인도자와 어린이도서관 자원봉사자들이 23일(목) 치악산으로 가을 나들이를 다녀오겠습니다.
5. **신앙강좌** : 다음 주일(26일) 오후 집회는 종교개혁 기념 주일 신앙강좌로 모입니다. 송병구 목사(선교국)가 '종교개혁과 독일교회'를 주제로 강연합니다.
6. **신앙실천** :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돌보는 것도 소중한 일입니다. 몸을 위하여 하루 40분 이상 기쁜 마음으로 운동을 하십시오.

* 헌화 : 한완식/임정자(결혼기념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치부	10:50	유치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초등부	10:50	교육관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학생회실	오후집회	14:00	교육관
2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1 청년회	16:00(±)	교사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